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역사 지식의 재구성*

양호환** · 김효준***

1. 머리말

지금까지 대부분의 역사수업에서 교사는 복잡한 역사 내용을 학생들에게 단순화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학생들 역시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지지 못한 채 과거에 대한 사실만을 암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결과로서의 역사지식’만을 전달하는 수업으로는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을 제대로 키울 수 없다.

이런 문제에 주목한 많은 교사와 연구자들은 단순 지식 전달식 수업을 탈피한 다양한 역사 수업을 시도해 왔다. 사료를 통한 교수학습으로 역사가들이 사료를 통해 역사상을 구성해가는 방식을 경험하게 한다거나 극화 수업으로 역사의 모습을 단순히 지식으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적 이해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역사를 추체험하도록 하는 등의 교수 학습 전략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컴퓨터를 활용하는 역사 수업도 지식 전달식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학생들이 역사의 해석적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컴퓨터의 하이퍼텍스트 체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하이퍼텍스트(hypertext)를 이용하여 역사 지식을 인지적 특성에 따라 재구성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2. 역사 지식의 특성

역사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역사라는 학문의 탐구 과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역사학 고유의 연구대상과 연구 절차, 그리고 사고방식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역사교육의 교수학습 방식과 절차 그리고 그 내용을 가늠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역사 연구에는 두 가지 본질적인 측면이 있다. 그 첫 번째는 과거 그 자체이다. 과거를 객관적 대상으로 상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역사 연구에서는 과거 그 자체에 대한 고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역사학을 다른 학문과 구별시켜주는 준거이기 때문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인터넷기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대학원

이다. 역사의 연구대상은 ‘과거’이다. 과거로부터 남겨진 흔적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으나 역사의 연구대상으로서 과거를 거론하기 위한 단초가 된다. 즉, 역사가가 과거의 흔적에 관해 적절한 질문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두 번째는 역사가에 의해 (재)구성된 역사 지식이다. 역사에는 과거로부터 남겨진 흔적(사료, 유물)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의미를 재구성한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과거의 흔적에 의미를 부여하고 재해석하는 주체는 역사가이며, 역사가에 의해 구성된 의미와 재해석은 최종적으로 역사 지식이 된다. 이러한 역사지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다. 과거의 흔적으로부터 역사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역사가들은 ‘역사적 사고’라고 정의할 수 있는 특정한 탐구 과정을 거친다. 즉, 역사가는 과거에 대한 해석의 과정을 거쳐 결과로서의 역사 지식을 구성해낸다. 따라서 역사 지식은 해석 결과로서의 측면과 해석 과정으로서의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역사가는 자신의 작업을 진행할 때에 이러한 측면들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조화시킨다. 역사가는 과거의 흔적을 탐색하면서 자신의 관점에서 과거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 과정을 거쳐 역사 지식을 구성해낸다. 이 때 역사가는 자신이 구성해 낸 역사지식이 과거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과 해석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학생들은 역사 수업 과정에서 과거 그 자체와 역사지식 사이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과거의 흔적으로부터 역사지식에 이르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개 역사 교과서는 결과로서의 역사지식만을 담고 있으며 역사 수업에서 학생들은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이 역사적으로 사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역사가들이 역사를 구성해 내는 과정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사는 역사 수업을 역사가의 인지적 과정을 재현(representation)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 역사에서의 읽기와 하이퍼텍스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역사가의 인지 과정을 재현하는 역사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데, 컴퓨터의 활용도 그 중 하나의 방법이다. 역사 교과에서 주목할 만한 컴퓨터의 기능 중 하나는 하이퍼텍스트이다. 학생들이 역사의 본질적 측면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해석적 성질을 이해하고 자기 자신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하이퍼텍스트는 이를 추진시킬 수 있다.¹⁾ 하이퍼텍스트는 개념들이 다중 경로로 서로 연결되는 일종의 정보 조직 체계 혹은 정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²⁾ 하이퍼텍스트는 본질적으로 전

1) 하이퍼텍스트를 활용한 교수학습 환경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Burbules, Nicholas C., "Knowledge at the crossroads : Some alternative futures of hypertext learning environments", *Educational Theory*, v.46, n.1, 1996. 참조

혀 새로운 정보 조직 방식은 아니지만, 기존의 텍스트 조직 방식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지식이란 것은 정보의 의미있는 조직화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퍼텍스트는 새로운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바로 지식의 구성방식과 지식의 표현방식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지식은 일정한 양의 단위 정보가 모이고 이들이 독특한 조직화 방식대로 정리될 때 정립된다. 이는 결코 선형(線形)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3차원적, 공간적,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배적인 지식의 표현방식은 책, 문서 등 인쇄물의 형태를 통하여 지식의 조직망에서 위치와 성격이 서로 다른 단위 정보들을 직선적으로 배열하는 것이었다.³⁾ 만약, 지식의 표현방식이 인쇄매체뿐이라면, 특정 지식이 가진 실질적인 체계나 구조는 문서나 책과 같은 정보의 직선적인 구성 방식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반면에, 하이퍼텍스트 상에서 단위 정보는 단지고립된 사실이나 분리된 요소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정보 조직망에서 하나의 노드(node)⁴⁾로서 나타난다. 요컨대, 하이퍼텍스트에서는 정보를 비직선적이고 상호관련적이며 공간적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하이퍼텍스트는 그 조직 방식의 특성상 지식의 구성방식에 가장 근접한 형태로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하이퍼텍스트는 지식의 구성방식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의 해석적·주관적 본질을 드러낼 수 있다는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기존의 텍스트는 직선적이고 순서적인 읽기와 쓰기를 가정한다. 독자는 저자가 제시하는 순서와 형식으로 정보를 접한다. 해당 텍스트 내에 다른 텍스트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하지만, 이런 것은 문서, 즉 주텍스트의 바깥에 존재한다. 반면에 하이퍼텍스트는 순서적으로 읽을 수 있는 중심적 내러티브나 논의를 포함할 수도 있지만, 중심적인 내러티브를 사실상 약화시키기도 한다. 즉, 하이퍼텍스트에서 주텍스트는 주석, 참고문헌, 비평, 기타 보충자료 등과 함께 텍스트적 정보의 그물망 안에 존재하며 독자는 이들 각각에 직접 그리고 즉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중심적인 내러티브의 기능은 약화된다.

보통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개별적이고 분리된 것으로 배우지 않는다. 어떤 것을 이미 아는 것과 연관지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더 잘 이해한다. 이런 점에서 저자가 정해

-
- 2) Burbules, *op. cit.* ; 나일주와 정인성은 하이퍼텍스트를 ‘노드와 링크로 구성된 자료구조를 갖는 정보의 구성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나일주 & 정인성, 『CAI 개발과 활용』, 서울, 교육과학사, 1990.)
 - 3) 비록 인쇄물에서 참고문헌 표시, 주석 등 여러 장치를 통해 저자가 非線形性(non-linearity)을 제공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표현 양식에 의해 線形性(linearity)이 지배적일 수 밖에 없다.
 - 4) 노드(node)는 하이퍼텍스트 체제에서 하나의 정보가 다른 정보와 직접 연결되는 개념적 위치를 말한다.

놓은 정보들 사이의 위계는 모든 독자에게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⁵⁾ 그러나, 기존의 텍스트는 저자가 정해 놓은 방식으로 읽기를 강요하여 독자들의 주관적인 해석적 독해를 방해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는 유연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 상에서 모든 노드는 평등하다. 우선적인 것도 더 중요한 것도 더 중심적인 것도 없다. 하이퍼텍스트의 독자는 저자에 의해 미리 결정된 과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흥미, 호기심, 경험에 따라 자유롭게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 상에서 독자는 자신의 이해에 따라 새로운 관련성을 찾아낼 수 있으므로 단지 텍스트의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텍스트 생산자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이퍼텍스트 체제에서는 저자와 독자의 전통적인 구분이 약화된다. 하이퍼텍스트의 설계자도 기존의 저자처럼 텍스트가 어디에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텍스트의 중요 구조와 정보의 흐름, 주텍스트와 부텍스트를 결정한다. 그러나 만약 엄청나게 많은 노드에 대해 모두 링크가 만들어진 하이퍼텍스트 체제라면, 설계자가 그에 부여한 구조와 흐름은 독자의 하이퍼텍스트 읽기 과정에서 약화되어 버릴 것이다. 저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관련성을 독자가 찾아낼 가능성이 더욱 늘어날 것이며 저자(설계자)가 부과한 주텍스트와 부텍스트의 경계도 다르게 파악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텍스트를 생산하는 과정이 해석의 과정이며 하이퍼텍스트의 생산도 해석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독자가 텍스트 사이의 관련성을 저자와 다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해석의 과정과 결과가 저자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저자가 구성해 놓은 특정지식의 주관적이고 해석적인 본질을 하이퍼텍스트가 드러냄으로써 독자의 해석적 독해를 촉진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런 가능성을 가진 컴퓨터의 하이퍼텍스트 체제를 역사 수업에서 적절히 활용한다면 역사의 본질적 측면을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하이퍼텍스트를 통하여 결과로서의 역사 지식을 전달하면서 동시에 해석적 독해의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할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 체제는 학생들이 미리 정해진 역사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정 관심과 경험에 따라 역사적 질문을 제기하고 그 답을 추구하도록 돕는다. 이처럼, 하이퍼텍스트 체제를 이용하여 교사가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해석적 독해를 학습활동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

한편, 컴퓨터의 하이퍼텍스트 체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합함으로써 많은 역사 내용을 학생들에게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암기를 넘어서 역사적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게 하고 하나의 사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⁶⁾ 더구나 기존의 역사 내용을 조직하는 방식인 내러티브에서는 역사적 사실

5) 역사 서술에 대한 저자와 독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양호환, 「역사교과서의 서술 양식과 학생의 역사 이해」, 『역사교육』 59, 1996., 양호환, 「역사서술의 주체와 관점 - 역사교과서 읽기와 관련하여-」, 『역사교육』 68, 1998. 참조.

이 고정되어 있고 역사 지식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하이퍼텍스트는 역사적 사실들의 관계를 중시하게 하고⁷⁾ 그림으로써 역사지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역사지식의 표면적·사실적 측면뿐만 아니라 역사지식의 구성적 성질, 역사의 해석적 성질을 파악할 수 있다.⁸⁾ 또, 하이퍼텍스트는 단순히 역사 내용을 학생들에게 투명하게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라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하이퍼텍스트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관심과 경험에 따라 증거를 조직하는 방식과 역사적 사례를 이해하는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⁹⁾

4. 역사지식의 하이퍼텍스트 구성 방안

하이퍼텍스트의 구성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이퍼텍스트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구조화 정도와 노드 간의 링크 방식에 따라 크게 연상적 하이퍼텍스트

-
- 6) Swan, Karen, "History, hypermeida, and criss-crossed conceptual landscapes : Designing hypermedia application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historical thinking", in T. Ottmann & I. Tormek (eds.), *Proceedings of Educational Multimedia and Hypermedia*, (Vancouver, BC, Canada.), 1994. p.535 ; Spoehr, Kathryn T. & Spoehr, Luther W., "Learning to think historically", *Educational Psychologist*, 29(2), 1994. pp.71-77 ; Bellamy, Craig, "The web, hypertext and history : A critical introduction", *Electronic Journal of Australian and New Zealand History*, November 1999. paper presented at "Virtual Histories, Real Time Challenges Symposium" held in July 1999. (<http://www.jcu.edu.au/aff/history/virtual/bellamy.htm>) ; Davison, Graeme, "History and Hypertext", *Electronic Journal of Australian and New Zealand History*, August 1997. (<http://www.jcu.edu.au/aff/history/elehist/davison.htm>)
- 7) Swan, *op. cit.*, p.535 ; Spoehr & Spoehr, *op. cit.*, p.71
- 8) Spaeth는 영국의 고등교육에서는 역사교육에서 워크샵의 형태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1차 자료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역사의 해석적 본질을 강조하는 것이며, 역사내용을 전달하는 도구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고등교육보다 중등교육에서 일반적인데 이는 역사내용을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탐색하도록 할 수는 있으나 역사 지식을 사전에 미리 결정해 놓아 역사를 독자적으로 읽는데 필요한 비판적 능력을 가르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Spaeth는 이런 두가지 형태의 컴퓨터 사용은 하이퍼텍스트 체제를 통해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Spaeth, Donald A., "Computer-assisted Teaching and Learning", in Alan Booth & Paul Hyland (eds.), *History in Higher Education : New Directions in Teaching and Learning*, 1996.
- 9) 역사와 하이퍼텍스트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Bellamy, *op. cit.* ; Davison, *op. cit.* ; Swan, *op. cit.* ; Spoehr & Spoehr, *op. cit.* 등이 참조된다.

(associative hypertext)¹⁰⁾와 위계적 하이퍼텍스트(hierarchical hypertext)로 구분할 수 있다. 연상적 하이퍼텍스트는 노드 간의 연결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비구조적 하이퍼텍스트 환경이며, 위계적 하이퍼텍스트는 정보를 몇 개의 층이나 부분으로 나누어 이들을 위계적인 관계로 연결하는 구조적 하이퍼텍스트 환경이다.¹¹⁾ 하이퍼텍스트 환경에서의 학습은 이 양자 사이에서 다양하고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역사교과에서 적절하게 하이퍼텍스트 환경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역사의 본질적 측면에 기초하여 역사교육의 목표를 지향하는 적절한 하이퍼텍스트 구성 방식을 추구하여야 한다.

1) 역사 텍스트의 인지적 재현과정

역사 수업에서 학생들이 역사내용을 받아들이는 행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읽기' 행위이다. 하이퍼텍스트는 일차적으로 학습자의 읽기와 관련된 매체이므로 역사에서 읽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하이퍼텍스트의 구성방식을 찾아야 한다.

역사 교과에서는 피상적 독해를 넘어서는 읽기가 요구된다. 역사학습에서 학생들은 일반적인 읽고 배우는 기술뿐만 아니라 텍스트에서 정보가 조직되는 방식도 이해해야 한다.¹²⁾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사료가 파편화되어 있고 내적으로 일관성이 없을 때, 그 조각들을 모아서 일관된 과거의 상을 구성하기 위해 특정한 읽기의 인지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에서 교육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읽기의 결과가 아니라 읽기 과정 즉, 인지적 과정이다. 역사를 가르치는 목표가 역사적 사실의 이해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고하는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라면, 수업에서 역사가의 그러한 인지적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역사가들이 역사 텍스트를 읽으면서 겪게 되는 인지적 재현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이퍼텍스트를 구성하여야 한다. 역사가들이 역사 텍스트를 읽으면서 겪게 되는 인지적 재현과정을 단순한 모델로 정리하여 표현한 것이 다음 그림¹³⁾이다.

10) 장수정은 '연합적 하이퍼텍스트'라는 번역어를 사용하였다. (장수정, 「인지적 융통성 이론에 기초한 하이퍼텍스트 학습 프로그램의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21)

11) 장수정, 앞의 논문, pp.7-22

12) Britt, M. Anne., Rouet, Jean-Francois., Georgi, Mara C., & Perfetti, Charles A., "Learning from history texts : From causal analysis to argument models", in Gaea Leinhardt, Isabel Beck & Catherine Stainton (eds.), *Teaching and Learning in History*, Hillsdale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1994. p.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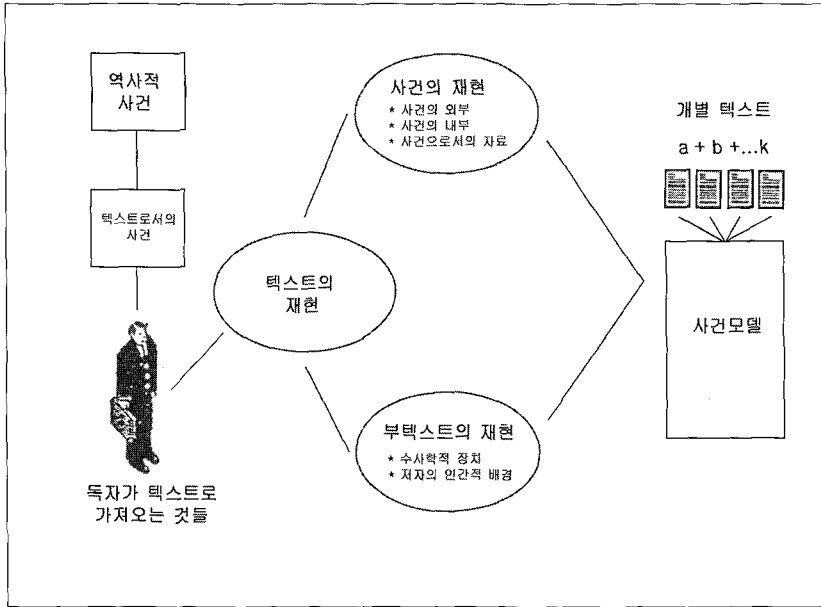


그림 1 역사 텍스트의 인지적 재현 모델

이 모델¹⁴⁾은 역사적 사건(Historical Event)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은 사건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는데 관심이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다. 이 기록은 그 자체로 재현(representation)이며 사건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다. 독자는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련의 배경지식, 신념, 전략 등을 그 텍스트에 투사한다. 이로써 역사를 읽는 독자 즉 역사가는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인지적 재현을 만들어 낸다. 텍스트의 재현(the representation of the text)은 텍스트를 그 문구적인 의미대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언어 구사능력과 어휘력, 혹은 기본적인 역사 사실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텍스트의 재현이 이루어지고 나면, 사건의 재현(the representation of the event)과 부텍스트의 재현(the representation of the subtext)이 이루어진다. 사건의 재현은 텍스트가 묘사하고 하고 있는 실체에 대한 어떤 것을 재현해 내는 것을 말한다. 부텍스트의 재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텍스트에 남기는 저

13) Wineburg, S. S., "The cognitive representation of historical texts", in Gaea Leinhardt, Isabel Beck & Catherine Stainton (eds.), *Teaching and Learning in History*, 1994.에서 p.90의 'FIG.4.1. Model of the cognitive representation of historical texts'를 참조.

14) Wineburg가 제시한 역사적 텍스트의 인지적 재현 모델을 인용하였음. Wineburg, S. S., *op. cit.*

자의 의도, 신념, 세계관을 밝혀 내는 것이다.¹⁵⁾ 부텍스트를 구성하는 텍스트 안의 실마리는 결코 객관적이거나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텍스트의 재현은 저자의 의도, 신념, 세계관에 대한 독자의 가설이며, 역사 텍스트가 결코 객관적일 수 없는 인간의 창조물임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의 재현과 부텍스트의 재현은 각 텍스트마다 만들어지며, 여러 텍스트들을 검토하고 읽음으로써 축적되는 정보는 '사건모델(Event Model)'로 집중된다. 즉, 사건의 재현들과 부텍스트의 재현들이 일관성있게 축적되어 '사건모델'을 만들어낸다. 텍스트의 재현이나 사건의 재현이 해당 텍스트에 기반한 것이라면, 사건모델과 부텍스트의 재현은 지금까지의 축적 정보를 통해 독자가 만들어내는 독자 기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텍스트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정보는 사건모델을 통해서 걸러지고 다시 사건모델을 변형시키거나 사건모델에 추가되기도 한다.

하이퍼텍스트 체제를 통한 역사 내용의 재구성은 이와 같은 역사 텍스트의 인지적 재현 과정에 기반하여야 한다. 역사 내용을 무작정 제시하여 학생들이 직접 수행해야 할 인지적 재현을 방해하거나 재현의 '결과'를 무분별하게 배치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학생들이 직접 역사 텍스트의 인지적 재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이퍼텍스트 체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인터페이스¹⁶⁾ 장치를 고안해내고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스스로 '텍스트의 재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그에 적절한 인터페이스 장치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가?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텍스트의 재현을 위해서는 역사 용어나 시대적 배경과 같이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 학생들의 학습 과정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런 사전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15) 예를 들어, 1894년 당시의 유생들이 동학농민운동을 기록하면서 봉기한 농민들을 '비적(匪賊)'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봉기한 농민들 스스로는 '의(義)로서 봉기하였다'고 하였지만, 굳이 '비적'으로 표현한 것은 유생들이 봉기한 농민들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알려주는 수사학적인 장치이며,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유생층'들임에 주목하여 이들이 양반지주층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저자의 인물적 배경을 재현한 것이다. 이러한 재현과정을 부텍스트의 재현이라고 한다.

16) 원래 인터페이스(interface)란 2개의 다른 세계가 접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면(面)을 가리키는 화학 용어이다. 다른 2개의 물질이 접하는 면이라는 것에서 "계면(界面)"이라고도 번역하는데, 계면 화학, 계면 활성제, 계면 장력 등으로도 사용되는 용어이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사람과 도구 및 기계와의 접점, 도구·기계와 대상과의 접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게 되었다. (카이호 히로유키, 하라다 에즈코, 쿠로스 마사아키, 『인터페이스란 무엇인가』, 박영목, 이동연 譯, 지호출판사, 1998. p.37) ; 여기에서는 특히 인간과 컴퓨터 간의 상호작용 양식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한다.

2) 자료의 구분과 재구성

역사 내용을 하이퍼텍스트로 재구성하려고 할 때에는 텍스트의 복잡성을 해체시키고, 관계와 망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1차 사료는 그 자체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유기체적인 단위 혹은 미묘한 부텍스트의 재현이 필요한 텍스트이므로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역사 내용의 재구성에 있어 교과서용 텍스트(교과서나 개설서 혹은 교양서 등)와 구분되어야 한다. 1차 사료와 그 외의 읽기 자료는 재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인지적 측면이 다르고,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역사 내용의 재구성을 위해서 해체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Wineburg의 연구¹⁷⁾나 Leinhardt & Young의 연구¹⁸⁾ 결과에 따르면, 사료를 읽을 때 역사가들은 분류(classification), 대조확인(corroboration), 출처확인(sourcing), 맥락화(contextualization)라는 네가지 인지행위(cognitive performance)를 수행하는데 이를 규명 스키마(identify schema)라고 하며,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적 독해(textual read)와 역사적 독해(historical read)라는 두 가지 인지행위를 수행하는데 이를 해석 스키마(interpret schema)라고 한다.¹⁹⁾ 1차 사료를 역사 수업에서 활용하려고 할 때에는 이런 규명 스키마와 해석 스키마를 고려하고 그 구체적인 인지행위를 고려하여 수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²⁰⁾

이에 반해 1차 사료가 아닌 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분류나 출처확인이 필요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맥락화마저도 빠질 경우가 있고, 역사적 독해도 일어나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 있다. 1차 사료와 역사 교과서용 텍스트는 본질적으로 같은 역사 텍스트이지만, 학습자가 받아들일 때는 차이점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1차 사료를 읽으면서 학습할 경우 역사 텍스트의 인지적 재현 과정에서 텍스트의 재현에 필요한 시간이 매우 많아질 것이며, 목표로 하는 사건 모델의 구성은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될 것이다. 또 1차 사료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사건으로서의 자료)이기 때문에²¹⁾ 역사 수업의 재구성을 위한 목적으로 그 구성요소를 해체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17) Wineburg, S. S., "Historical Problem Solving : A Study of the Cognitive Processes in the Evaluation of Documentary and Pictorial Evide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83, n.1, 1991.

18) Leinhardt, Gaea & Young, Kathleen McCarthy, "Two Texts, Three Readers : Distance and Expertise in Reading History", *Cognition and Instruction*, 14(4), 1996.

19) Leinhardt & Young, *op. cit.*

20) 권정수, 「인지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사료학습 방안」,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21) Wineburg, S. S., "The Cognitive Representation of Historical Texts", *op. cit.*, p.103

교과서용 텍스트는 해체를 통해서 더욱 교육적으로 유용한 인지적 재현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할 수 있다. 만약 1차 사료만을 활용하여 역사수업내용을 재구성하려 할 때에는 사료에 관련된 인지행위를 고려하여 수업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사료를 활용하는 목적이 적절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교과서용 텍스트를 활용할 때에는 오히려 텍스트의 재현과 사건의 재현, 그리고 사건모델의 구성을 위해서 적절히 수업전략을 짜고 수업내용을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처럼 하이퍼텍스트를 통하여 역사 수업내용을 재구성하려 할 때에는 수업과정에서 적절한 인지적 재현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료를 적절히 분석하고 구분하여 활용해야 한다.

활용할 자료가 적절히 구분되면 각 자료의 조직 방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조직 방식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하이퍼텍스트 체제의 구성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보통 역사 교과서나 개설서, 교양서는 주로 내러티브 형식과 설명 형식으로 조직·서술되고 있다.²²⁾ 하이퍼텍스트를 통해 역사 수업내용을 재구성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역사 내용의 서술 형식을 분석하여 의미망으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역사 내용의 서술에는 그 내용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 구성 요소는 내용의 독해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역할과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여 내용의 조직 구성을 일정한 단위로 분류하고 관계망을 설정하여 하이퍼텍스트로 구현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설명 형식의 서술이 이미 내러티브 형식의 서술 내용을 참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러티브 형식의 구성 방식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다.

내러티브(Narrative)는 역사 서술의 보편적이고 전통적 양식인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역사 서술 전반을 가리킨다. 보통 연보(Annals), 연대기(Chronicles), 역사적 내러티브(Historical Narrative)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역사적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내러티브는 연대기적 계열 순서로 소재를 조직하여 내용을 단일하고 조리있는 이야기로 집중시키는 역사 서술 형식을 말한다. 이 경우 내러티브 형식의 서술은 하나의 중심 주제를 둘러싸고 일정한 구성 형식 - 예를 들어, 시작과 전개, 반전, 결말 등 - 을 갖춘 일련의 이야기로 나타난다.

Britt 등의 연구²³⁾는 내러티브를 분석하여 하이퍼텍스트 체제로 재구성하는데 시사점을 준다. 그들은 중등 단계 역사 교과서의 전형적인 텍스트는 사건이 시간적, 인과 관계

22) 김한중, 「역사의 표현형식과 국사교과서의 서술」, 역사교육연구회 2000년도 추계 학술대회 발표문. (21세기 국사교육의 새로운 모색) 2000.에서 김한중은 역사교과서에서 사용되는 역사서술의 형식을 ①계기적 서술, ②설명식 서술, ③해석적 서술, ④가치판단적 서술로 구분하였는데, 역사교과서에는 계기적 서술과 설명식 서술이 지배적이라고 하였다. 계기적 서술은 내러티브와 연대기적 서술을 포함하며, 설명식 서술은 인과적 서술, 예시, 비교 등의 방법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 Britt, et al., op. cit. p.47

23) Britt, et al., op. cit. pp.47-84

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러티브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역사 텍스트의 인과적-시간적 사건 모델(causal-temporal event models of history texts)을 구성하였다. 내러티브 내에서는 주된 사건들(main events)이 있고 이들은 사건들 각각의 중요도에 따라 핵심 사건(core events)과 비핵심사건(noncore events)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된 사건이 아닌 진술은 지지정보(supporting information)로 분류되는데, 여기에는 지지사건(supporting events)과 세부사항(specific details)이 포함되어 있다. 지지정보는 중심이야기를 꾸며준다. 내러티브 내의 요소들을 연결해주는 연결어(connectors)도 특별히 분류된다. 이들은 가능(enable), 결과(result), 동기(motive), 시간(temporal)과 같은 몇 가지 형태의 관계로 구별되는데, 정보들 사이의 망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와 같이 내러티브 구성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복합적인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들을 해체시켜 학생들의 인지적 재현 행위, 인지행위를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 때 하이퍼텍스트 체제를 통한 수평적 링크(horizontal links)와 수직적 링크(vertical links)²⁴⁾라는 망 구성의 구조적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각각의 텍스트를 재현하고 사건을 재현하면서 축적된 정보는 사건모델을 형성한다. 사건모델은 새로운 텍스트의 정보를 판단하는 시금석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보에 의해 변화되고 풍부해지며 상세해진다. 그 과정에서 텍스트는 수평적 관계에서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각각의 텍스트는 단일한 내러티브이지만 서로 통합되어 총체적인 사건의 재현이 되고 사건 모델로 발전한다. 또 이러한 수평적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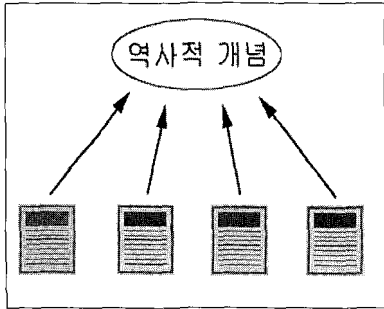


그림 2 수평적 링크의 구조

는 논쟁모델의 구현에도 유용한 면을 가진다. 역사에 대한 설명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 증거를 구성하는 방식이 다른 경우, 같은 증거를 놓고 해석이 다른 경우 등 상반되는 내러티브들은 논쟁을 일으킨다. 학습자는 그 속에서 판단을 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표현하고 역사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구조가 수평적 링크라고 할 수 있다. 수평적 링크는 역사의 내용을 같은 수준에서 제시하도록 묶어 놓은 것이다.²⁵⁾(‘그림 2’ 참조) 학생들은 수평적

링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역사 내용을 스스로 자신의 관심과 입장에 따라 검토하면서 나름대로 역사적 개념을 이해하고 상징할 수 있게 된다. 즉, 학생들은 수평적 링크를 통해 제시되는 역사적 사실들에서 자기 나름의 역사 지식을 구성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다.

24) Spoehr & Spoehr, *op. cit.*, pp.75-76

25) 수평적 링크는 대개 하나의 주장을 구성하는데 함께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예와 사실들을 함께 묶은 것이다. (Spoehr & Spoehr, *op. cit.*, p.75)

수업내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링크와 더불어 수직적 링크가 필요하다. 수평적 링크는 학생들 자신의 사건모델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런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수평적 링크만으로 구성된 하이퍼텍스트 체제를 접하였을 때는 오히려 역사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역사적 사실을 더 적게 기억하였으며, 역사적 주장을 제시하는 데 덜 효과적이었다고 한다.²⁶⁾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수직적 링크이다. 수직적 링크는 지식을 구성하는 정보들 사이의 관계 망에 대해 위계적 개요 구조를 첨가하는 것이다. 즉, 수평적 링크는 정보들을 수평적으로 나열하는 것이라면, 수직적 링크는 정보들을 단계적으로 배열하는 것이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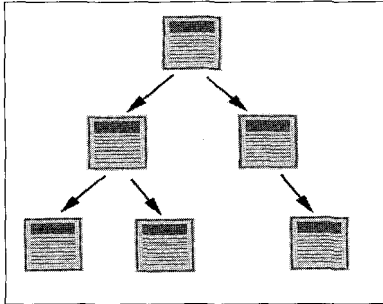


그림 3 수직적 링크의 구조

하나의 지식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수평적 링크가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복합적인 내러티브를 제공하며 해석의 다양성을 열어놓는 역할을 한다면, 수직적 링크는 기존의 지식 체계가 어떻게 정보를 조직하고 있으며 어떠한 증거와 사실을 서로 관련시켜 설명을 이끌어 내는지, 어떠한 해석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수평적 링크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시할 때 요구되는 인지 활동, 즉 균질적인 상태로 제시되는 정보를 체계화시키고 적절히 관련시켜 자신의 해석을 이끌어 내는 것은 학생들이 단번에 이루기는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 조직 방식과 해석, 증거의 관련성에 의거하여 정보들 사이의 관계 망에 위계적 개요 구조(수평적 링크)를 첨가하면 학생들은 더 쉽게 해당 지식체계의 정보 조직방식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역사 텍스트의 인지적 재현 과정에 대해 주의하면서 역사 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다음, 수평적 링크와 수직적 링크와 같은 망 구성의 구조적 개념을 활용하여 역사 수업 내용을 하이퍼텍스트로 구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단위 정보 화면의 구성

하이퍼텍스트 체제에서 단위 정보를 형성하는 것은 역사지식의 기존 조직 방식인 내러티브이거나 설명적 서술이다. 학습자들이 역사의 본질적 측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직 방식이 가지는 약점을 하이퍼텍스트로서 보완하여야 한다. 각 단위 정보를 형성하는 내러티브 혹은 설명은 복합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이퍼텍스트의 링크 체제를 이용하여 내용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학습자들이 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26) Spoehr & Spoehr, *op. cit.*, p.75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역사 내러티브 혹은 역사 설명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하이퍼텍스트 체제에서 컴퓨터의 한 화면으로 드러나는 단위정보의 구현방식도 전체 하이퍼텍스트 구조를 구성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관계를 통해 역사적 지식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개별 텍스트를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구성방식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느냐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단위 정보 화면을 구현하는 데 주목해야 할 것은 역사가들의 읽기가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점과 학생들이 적절한 텍스트의 재현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역사가들은 개별 역사 텍스트를 읽을 때 해당 텍스트에만 국한해서 독해하지 않고 다른 출처의 역사텍스트를 포괄해서 참조하며, 그 해당 텍스트의 내용과 해당 텍스트의 주요 흐름에서 제외되어 있는 주석, 그리고 텍스트와 컨텍스트(context) 사이를 복잡하게 오가며 역사 내용을 재구성하면서 읽는다.²⁷⁾ 즉, 그들의 읽기는 동시에 내용의 재구성 과정이다. 하이퍼텍스트를 통해 역사 내용을 재구성할 때 이러한 비직선적인 과정을 단위 정보 화면에서도 구현하여야 한다.

요컨대, 각각의 단위 정보 화면은 事前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학생들도 텍스트의 재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辭典的인 어휘 지식과 역사 사실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쓰이는 인터페이스 장치는 노드를 통해서 다른 화면으로 이동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읽고 있는 내러티브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팝업(popup) 형태로 事前지식을 제공하는 형식을 이용한다.(**그림 4** 참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컴퓨터 화면에서 만약 내러티브 '가'가 완전히 사라지고 사례 B만을 볼 수 있다면, 학습자의 읽기는 내러티브 '가'를 이해하려는 텍스트의 인지적 재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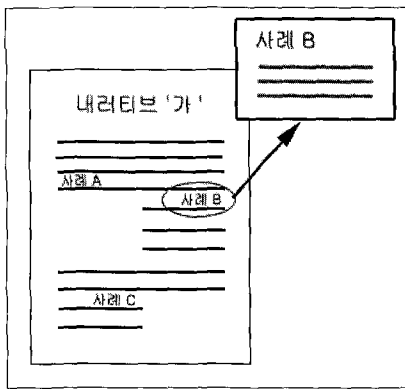


그림 4 각 단위 내러티브의 화면구성

이 아니라 분리된 정보 사례 B를 이해하려는 인지적 행위로 변화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집중력 약화 혹은 분산으로 전체 인지적 재현 과정은 중심을 잃고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읽기 과정에서 다른 내용을 참조하기 위해 화면 전체가 바뀌거나 중심점이 바뀌지 않도록 인터페이스의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7) Davison은 역사가들은 이미 여러 세기동안 하이퍼텍스트의 원시적인 형태인 주석을 사용해 오고 있으며, 만약 본문에서 주석으로 혹은 개요에서 색인으로 오가면서 역사 책을 읽는 역사가의 눈동자나 정신적 과정을 추적한다면 역사 텍스트의 읽기 과정에서는 결코 직선적인 경우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Davison, *op. cit.*)

이러한 화면 인터페이스는 몇 가지 이유에서 유용하다. 첫째로 역사 텍스트 읽기의 비직선적인(non-linear) 과정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형태로, 또 지각할 수 있는 ‘행위’의 형태로 구현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역사교과서의 서술이든 1차 사료이든 텍스트를 인지적으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표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어휘력이나 기본 역사 사실에 대한 사전(事前)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터페이스 장치를 통해 텍스트의 재현을 위해서 필요한 사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5. 맺음말

역사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역사적 사고를 기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역사의 본질적 측면을 이해하여야 한다. 서술된 역사는 역사가가 과거에 대해 적절한 역사적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과거의 흔적인 사료와 유물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의미를 재구성한 결과이다. 즉, 역사 지식은 역사가의 주관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석적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역사 수업에서 역사의 해석적 본질과 잠정성을 올바르게 파악하거나 경험하기 어렵다.

하이퍼텍스트는 지식의 구성방식과 지식의 표현방식 사이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독자의 해석적 독해를 촉진할 수 있다. 이를 역사 지식의 재구성에 이용하면, 학생들에게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들 사이의 관련성을 인식하게 하고 역사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즉, 학생들은 하이퍼텍스트를 통하여 역사가의 인지적 과정을 체험할 수 있으며 역사적 지식의 해석적이고 구성적 성질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요컨대, 하이퍼텍스트는 역사 수업에서 학생들의 해석적 과정을 학습활동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하여 역사 지식을 재구성할 때에는 몇 가지 이론적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먼저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역사 지식의 재구성은, 역사 텍스트에 대해 문구적인 의미대로 이해하는 텍스트의 재현을 수행하고 그에 따라 사건의 재현과 동시에 부텍스트의 재현을 수행하며 이들이 축적되어 사건 모델을 형성하는 일련의 복합적인 인지 과정인 ‘역사 텍스트의 인지적 재현과정’에 기반하여야 한다. 둘째로, 자료를 접할 때 학생이 수행하는 중심적 인지 행위의 차이에 따라 1차 사료와 교과서용 텍스트의 구분과 같이 자료를 구분한 다음, 해당 자료의 조직 양식에 따라 복합적 내러티브의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관계들을 설정하고 이를 수평적 링크나 수직적 링크와 같이 적절한 망 구성의 구조적 개념을 활용하여 역사 내용을 하이퍼텍스트로 재구성하여야 한다. 셋째로, 단위 정보 화면은 역사 텍스트 읽기의 비직선적이고 복합적인 면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 장치를 고안하여 어려운 역사 용어나 역사 사실에 대한 事前지식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 ‘역사 텍스트의 인지적 재현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 논의한 하이퍼텍스트를 통한 역사 텍스트의 인지적 재현과정과 역사가의 역사 인지 과정이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저자와 독자의 관계에 관련된 텍스트의 인지적 재현과정과 역사가의 자료 분석 및 해석과정은 유사한 점이 많다. 이 글은 그 유사성에 주목하여 하이퍼텍스트가 역사 학습에 어떤 의미와 유용성이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주제어: 하이퍼텍스트, 역사적 사고, 인지적 재현, 역사텍스트, 수평적 링크, 수직적 링크

Reconstructing Historical Knowledge by Way of Using Hypertext

Yang, Ho-Hwan* · Kim Hyo Joon**

Hypertext can be effectively used in history teaching and learning. It helps students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process of making historical knowledge by providing the relatedness between knowledge construction and its modes of representation. Using hypertext, students can experience the historian's cognitive process and aware the interpretive and contingent nature of historical knowledge.

Some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using hypertext for this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using hypertext to reconstruct historical knowledge should be based on procedures of the cognitive representation of historical texts including subtexts and literal texts. Second, when constructing hypertext, proper vertical or horizontal links should be organized according to the forms and contents of historical texts. Finally, unit information pictures, especially in the interface mode, should be designed to show the nonlinear and complicated process of historical knowledge making.

Key words: Hypertext, Historical thinking, Cognitive representation, Historical text, Vertical links, Horizontal links

*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MA, History Maj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school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